

안압지와 임해전 복원 (雁鴨池와 臨海殿 復元)

田 有 泰

<文化財管理局補修課建築技佐>

目 次

- | | |
|---------------------|-----------------|
| 1. 歷史的 小考 | ○地域別 配植 |
| 2. 雁鴨池와 臨海殿址의 發掘 | 라. 其他 管理施設 |
| 3. 臨海殿 復元과 雁鴨池 造景整備 | 4. 模型復元 |
| 가. 護岸石築 整備 | 가. 臨海殿의 建物配置 |
| 나. 臨海殿 建物復元 | 나. 各 建物の 規模와 構造 |
| ○ 建物の 構造와 樣式 | 다. 主要建物の 構造樣式 |
| 다. 苑池 造景整備 | |

1. 역사적 소고(歷史的 小考)

안압지(雁鴨池)는 신라(新羅)가 삼국(三國)을 통일(統一)한 직후인 신라(新羅) 第30대 (代) 문무왕(文武王) 14年(674年) 2월에 궁내(宮內)에 연못을 파고 산(山)을 만들어 온갖 화초(花草)를 심고 진기(珍奇)한 짐승을 길렀으며 「궁내천지조산 종화초 양진금 기수(宮內穿池造山 種花草 養珍禽 奇獸)」 동왕(同王) 19年(679年)에는 임해전(臨海殿)을 비롯하여 많은 건물(建物)들을 지었다고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전한다.

물론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궁(宮)안에 뾰다는 연못이 안압지(雁鴨池)인지, 또 인접한 건물이 임해전(臨海殿)인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조선시대 초기(朝鮮時代 初期)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동경잡기(東京雜記)의 기록(記錄)에 의하면 안압지(雁鴨池)는 천주사(天柱寺) 북(北)쪽에 있으며 문무왕(文武王)이 궁(宮)안에 못을 만들고 돌을 쌓아 산(山)을 만들어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峰)을 상징(象徵)하여 화초(花草)를 심고 짐승을 길렀으며 그 서(西)쪽에 임해전(臨海殿)이 있었다. 그 주춧돌과 섬돌이 발이랑 사이에 남아 있다. 「안압지(雁鴨池) 재천주사북문무왕어궁내위지(在天柱寺北文武王於宮內爲池) 적석위산(積石爲山) 상무산십이봉(象巫山十二峰) 종화훼양금(種花卉養禽) 기서유임해전(基西有臨海殿) 기초체유재전묘간(基礎砌猶在田畝間)」 고 기록된 것이나 동사강목(東史綱目)의 「왕어궁내천지(王於宮內穿池) 적석위산(積石爲山) 상무산십이봉(象巫山十二峰) 종화훼양진금(種花卉養珍禽) 기서즉임해전(基西卽臨海殿) 지금칭안압지(池今稱雁鴨池) 재경주천주사북(在慶州天柱寺北)」 이라고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을 보면 궁내(宮內)에 관 연못과 그 서(西)쪽에 있는 임해전(臨海殿)이 불가분(不可分)의 궁내구조배치(宮內構造配置)로서 발굴확인(發掘確認)된

현(現) 안압지(雁鴨池)와 그 서(西)쪽 건물지(建物址) 즉(卽) 임해전지(臨海殿址)가 일치(一致)하는 것이다.

문무왕(文武王) 16년(676년) 신라(新羅)가 당(唐)을 축출(逐出)하고 삼국통일(三國統一)을 완성(完成)한 후에도 군비(軍備)와 축성(築城), 궁궐(宮闕)의 창건(創建), 중수등(重修等)의 건설사업(建設事業)을 계속하여 삼국(三國)을 통일(統一)한 국가(國家)답게 그 세력(勢力)을 과시(誇示)하였음을 문헌(文獻)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 후에도 안압지(雁鴨池) 주변(周邊)의 건물들은 수차(數次) 중수(重修)되거나 보수(補修)되었던 기록(記錄)이 전(傳)하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원성왕(元聖王) 2년(786년) 4월에 폭풍으로 임해(臨海), 인북(仁北) 두 문이 파괴되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애장왕(哀莊王) 5년(804년) 7월에 임해전(臨海殿)을 중수(重修)하고 그후 문성왕(文聖王) 9년(847년) 2월에도 평의(平議), 임해전(臨海殿)을 중수(重修)하였으며 경문왕(景文王) 7년(867년) 1월에 임해전(臨海殿)을 중수(重修)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 당시(當時) 임해전(臨海殿)이 위치(位置)하고 있던 동궁(東宮)의 중요성(重要性)을 알 수 있다. 중수기록외(重修記錄外)에도 효소왕(孝昭王) 6년(679년) 9월, 혜공왕(惠恭王) 5년(769년) 3월, 헌안왕(憲安王) 4년(80년) 9월이 왕(王)이 군신(君臣)을 임해전(臨海殿)에 모아 연회(宴會)를 베풀었다는 기록(記錄)이 보이며 헌강왕(憲康王) 7년(881년) 3월에는 군신(君臣)들을 임해전(臨海殿)에 모아 향연(饗宴)을 베풀고 왕(王)은 주흥(酒興)에 겨워 거문고를 타고 좌우(左右)의 신하(臣下)들을 모두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놀았다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또한 신라(新羅) 마지막 왕(王)인 경순왕(敬順王) 5년(931년) 2월에는 고려(高麗) 태조(太祖)를 임해전(臨海殿)에 모셔 연회(宴會)를 베풀며 태조(太祖) 왕건(王建)에게 부모(父母)를 대하는 것 같다고 했으니 이미 이때는 고려(高麗)에 항복(降服)한 상태였다고 하겠다. 신라(新羅)는 결국 4년 후인 935년 국운(國運)이 고려(高麗)에 넘어가고 말았다. 따라서 안압지(雁鴨池)는 문무왕대(文武王代)로부터 신라(新羅)가 멸망(滅亡)할 때까지 262년간(年間) 궁원(宮苑)으로서의 화려(華麗)했던 기능(機能)을 다 하였다.

2. 안압지(雁鴨池)와 임해전지(臨海殿池)의 발굴(發掘)

안압지(雁鴨池)는 경주종합개발계획(慶州綜合開發計劃)의 일환(一環)으로 1974년 11월부터 연못의 준설(浚渫)과 주변(周邊) 정화사업(淨化事業)으로 추진되었다.

연못에 퇴적(堆積)된 토사(土砂)의 상태(狀態)와 연못 원래의 깊이를 확인하며 준설공사(浚渫工事)를 시행(施行)하는 과정에서 다수(多數)의 와전류(瓦塼類)와 호안석축일부(護岸石築一部)가 노출(露出)됨에 따라 1975년 3월 24일부터 당시(當時) 경주고적발굴단(慶州古蹟發掘團)에 의해 본격적(本格的)인 학술발굴조사(學術發掘調査)가 착수(着手)되어 1976년 3월 25일까지 계속 되었으며 1976년 5월 10일부터 동년(同年) 12월 30일까지는 연못 주변(周邊) 건물지(建物池)에 대한 발굴조사(發掘調査)가 실시(實施)되었다.

발굴조사결과(發掘調査結果) 와전류(瓦塼類), 토기류(土器類), 목재류(木材類), 금속류(金屬類), 철기류(鐵器類)등 15,000여점(餘點)의 완형 유물(完形 遺物)이 출토(出土)되었음은 이미 알고있는 사실(事實)이지만 이중 각종(各種) 기와류(類)와 귀면(鬼面), 치미등(鷓尾等) 장식(裝飾)기와류(類), 벽과 바닥에 사용되었던 전류(塼類) 그리고 목부재(木部材)로 첨차(檐遮), 연목(椽木), 부연(付椽), 소로(小櫨), 연합(椽舍), 평고대(平高臺), 난간(欄干), 동자주(童子柱)

와 석재류(石材類)로서 난간장대석(欄干長臺石), 돌란대, 석제동자주(石製童子柱), 난간소로(欄干小廬)등(等) 약 6,000여점(餘點)의 건축부재 출토유물(建築部材 出土遺物)은 당시(當時)의 건축양식 연구(建築樣式 研究)에 귀중한 자료(資料)를 제공(提供)하였다.

연못의 면적(面積)은 4,738평(坪)으로 지중(池中) 3개(個)의 섬 둘레 석축(石築) 280m를 포함하여 굴곡(屈曲)이 많은 동(東)·북(北)측(側)과 남측(南側)의 호안석축(護岸石築)이 1,015m이고 서측(西側) 건물지(建物池)의 마름돌 석축(石築)이 270m로서 총연장(總延長) 1,285m가 확인(確認)되었고 건물지(建物池)는 서측(西側) 호안변(護岸邊)의 5개 건물지(建物池)를 포함하여 26동(棟)의 건물지(建物池)와 기존석구(既存石溝)의 연장유구일부(延長遺構一部), 수로(水路)와 수조(水槽) 그리고 원장지(垣牆址)가 노출(露出) 확인(確認)되었다.

3. 임해전 복원과 안압지 조경정비(臨海殿 復元과 雁鴨池 造景整備)

가. 호안석축 정비(護岸石築 整備)

발굴조사(發掘調査)에 의거 확인된 결과에 따라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는 서원건설주식회사(瑞原建設株式會社)와의 도급계약(都給契約)에 의해 1977년 7월부터 1978년 7월까지 1개년(個年間)에 걸쳐 연못주위의 호안석축(護岸石築)을 정비복원(整備復元)하였다.

연못의 서측(西側) 건물지(建物池) 석축(石築)은 직선(直線)과 직각(直角)으로 구성(構成)되어 동측(東側)과 북측(北側)의 변화(變化)가 많은 곡선호안(曲線護岸)과는 대조를 이루고 사용된 호안석(護岸石)도 잘 다듬은 화강석(化崗石)으로 정교(精巧)하게 축조(築造)되었다.

호안(護岸)의 5개(個) 건물지(建物池)중(中) 第1건물지(建物池)와 第3건물지(建物池) 석축(石築)은 규모(規模)가 큰 장방형(長方形)의 돌을 모 맞추어 쌓고 기타부분(其他部分)은 규모(規模)가 작은 장방형(長方形) 또는 사괴석형(四塊石形)의 가공석(加工石)을 사용하였다.

발굴(發掘) 당시(當時) 노출(露出)된 기존(既存)의 자연석형(自然石形) 기초석(基礎石)과 건물지(建物池) 석축(石築)일부(一部)는 조심스럽게 제 자리에 재축(再築)하고 붕괴(崩壞)되어 훼손된 석재(石材)는 보충(補充)하여 같은 수법(手法)으로 쌓았다. 서측건물지(西側建物池) 아래의 이단석축(二段石築)도 정돈(整頓)하였다. 건물지(建物池)에서 확인된 초석지(礎石址)의 높이와 남아있던 석구(石溝)의 위치(位置)를 근거(根據)로 하여 석축(石築)의 높이를 정(定)하고 마감 각돌을 놓아 연못 바닥으로부터 5.40m의 높이로 쌓았다.

동측(東側), 남측(南側) 그리고 북측(北側)의 호안석축(護岸石築)과 지중삼도(池中三島)의 주위석축(周圍石築)은 규격(規格)이 일매진 자연석형(自然石形)의 기름한 돌로 안정감(安定感)있게 쌓았다. 못가의 접안토층(接岸土層)을 조사하여 원래의 표층(表層)을 추정(推定)하고 남아있던 석축(石築)을 참고하여 높이를 정(定)했다.

연못 안으로 흘러있던 많은 석재(石材)를 수습(收拾)하여 가능(可能)한 그 자리에 다시 쌓고 동질(同質)의 석재(石材)를 구해 보충(補充)하여 연못바닥으로부터 2.05m높이로 쌓았다.

연못 동남(東南)쪽에서 확인된 수조(水槽), 입수로(入水路), 석곡(石谷)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瀑布)와 퇴수로(退水路)등 구조물(構造物)이 원형(元型)대로 복원(復元)되었다.

이 공사(工事)에 소요(所要)된 주요자재(主要資材)로는 석재(石材) 823m³, 생석회 56,000kg이 소요되었으며 석공(石工) 5,100명을 포함하여 연인원(延人員) 28,500명이 취역(就役)되었고 공사비(工事費)는 88,800,000원이 소요(所要)되었다.

나. 임해전(臨海殿) 건물복원(建物復元)

찬란(燦爛)했던 문화(文化)를 간직한 채 신비(神秘)에 묻혀 전(傳)해온 안압지(雁鴨池)와 임해전(臨海殿)을 재현(再現)시켜 신라문화(新羅文化)를 내외(內外)에 널리 선양(宣揚)하고 사회(社會), 교육(教育) 자료(資料)로 제공(提供)하는 동시(同時)에 관광자원(觀光資源)으로도 활용(活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978년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서는 임해전(臨海殿)의 건물(建物)일부 복원(復元)과 안압지(雁鴨池) 조경정비(造景整備) 사업(事業) 계획(計劃)에 착수(着手)하였다.

복원사업(復元事業)을 위하여 고고(考古), 미술(美術), 건축(建築), 조경분야(造景分野)등의 전문가(專門家)로 구성(構成)된 복원설계소위원회(復元設計小委員會)와 지도위원회(指導委員會)가 구성(構成)되었다고 수차(數次)에 걸친 연구토의결과(研究討議結果) 작성(作成)된 설계기본지침(設計基本指針)을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심의(審議)를 거쳐 확정(確定)하였다.

건물복원(建物復元)은 연못가의 5개(個) 건물지(建物池)중 3동(棟)(第1,3,5건물(建物))의 건물(建物)을 목조(木造)로 복원(復元)하고 기타(其他) 건물지(建物池)의 유구(遺構)는 원상(原狀) 매몰(埋沒) 성토(盛土)한 후 잔디를 심고 회랑지(回廊址)를 제외(除外)한 건물지(建物池)에는 그 해당 위치(位置)에 287개(個)의 초석(礎石)을 새로 깎아 배열(配列)하여 건물(建物)의 위치(位置)와 규모(規模)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복원(復元)된 건물지(建物池)석축(石築)과 第1,3,5건물(建物)

○ 건물(建物)의 구조(構造)와 양식(樣式)

건물(建物)의 구조양식(構造樣式)은 현지(現地)에서 발굴(發掘)된 옥개부재(屋蓋部材), 공포부재(栱包部材), 가구부재(架構部材), 난간부재(欄干部材)와 기와류(類), 전류(塼類)등 건축부재(建築部材)와 철물장식(鐵物裝飾)으로 고증(考證)하고 현존(現存)하는 최고(最古)의 목조건물(木造建物), 탑(塔)의 양식(樣式)과 동(同) 시대(時代)의 중국(中國)이나 일본(日本)의 자료(資料)등을 참고(參考)하여 신라양식(新羅樣式)으로 추정(推定)하였다.

第1건물(建物)

정면(正面) 3간(間), 측면(側面) 3간(間), 건평(建坪) 31.17평(坪)의 1출목(出目) 주심포(柱心包) 겹처마 팔작집으로 내부(內部)에 고주(高柱)가 있는 7량(樑) 가구(架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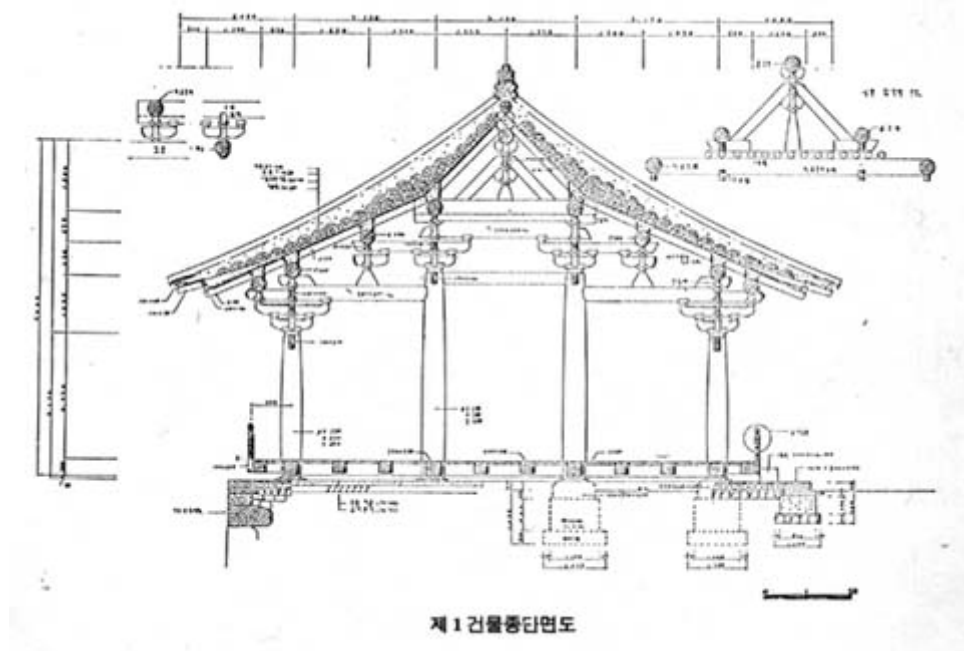
건물(建物)의 양식(樣式)은 봉정사 극락전(鳳停寺 極樂殿)과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 無量壽殿) 그리고 발굴유물(發掘發掘)등을 참고(參考)하여 복원(復元)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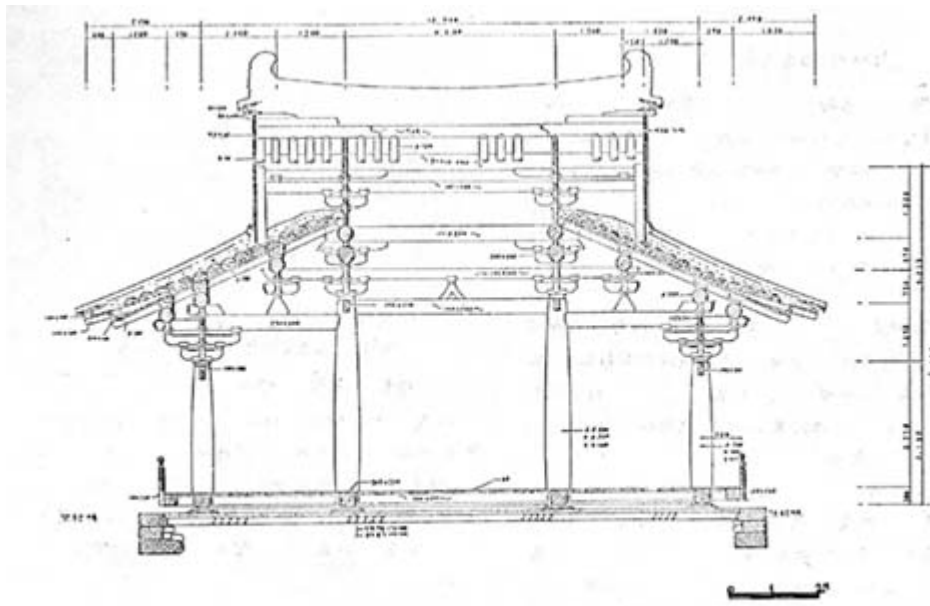
세부양식(細部樣式)은 배흘림이 있는 기둥위에 굽받침이 없는 주두(柱頭)를 놓고 그 위에 제공(濟栱)과 침차(檐遮)를 짜았다. 침차(檐遮)마구리는 발굴(發掘)된 침차부재(檐遮部材)와 동일(同一)하게 양면(兩面) 모두 직절(直切)하여 운두의1/2을 정확하게 잡아 굽접기로 사절(斜切)시키고 공안(栱眼)을 두었다.

3제공(濟栱)은 퇴량(退樑)머리가 빠져나와 이것이 외목도리(外目道里)를 받치게 했으며 퇴간(退間)의 중심에서 안으로 1척(尺) 치우쳐 포대공(包臺工)을 짜아 하중도리(下中道里)와 연목(椽木)을 받치게 하였다. 고주(高柱) 위에도 굽받침없는 주두(柱頭)를 놓고 침차(檐遮)를 짜았으며 그 위에는 하중도리(下中道里) 대공(臺工)과 연결하는 계량(繫樑)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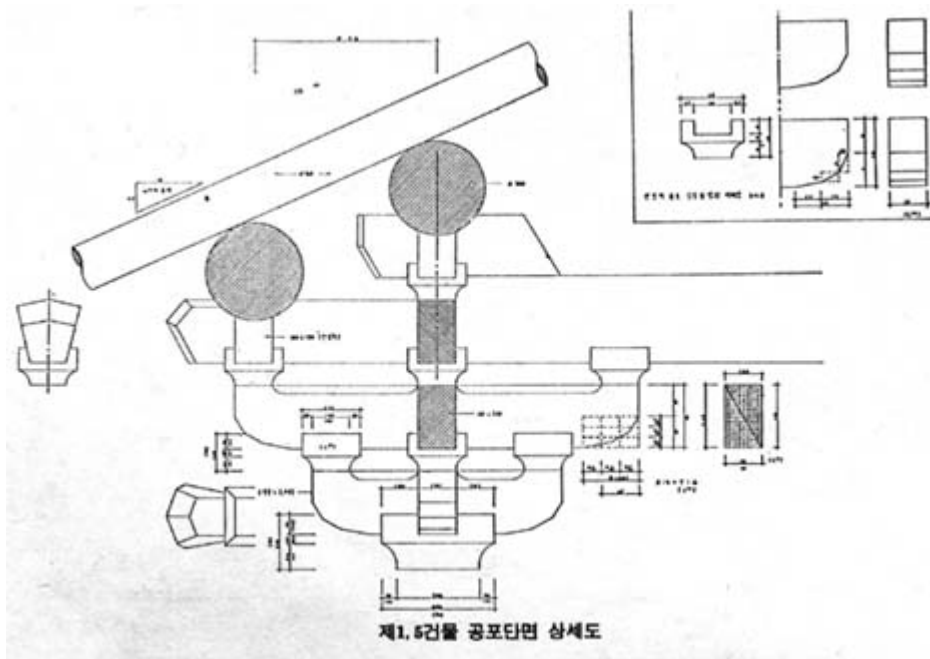
이 계량(繫樑)위에 향아리 보를 설치하고 중도리(中道里)를 올려놓았으며 중도리(中道里) 상부(上部)에 다시 포대공(包臺工)을 짜아 중도리(宗道里)를 받치게 하였다.

건물(建物) 내부(內部) 판상(板床)은 우물마루를 깔아 마감하였고 건물(建物) 외부(外部)에는 난간(欄干)을 설치하였다. 천정(天井)은 연등 천장으로 하고 지붕에는 발굴시(發掘時) 출토(出土)된 것과 동일(同一)한 치미(鴟尾)와 귀면등(鬼面等)을 제작(製作)하여 올려 장식(裝飾)하였다.





제 1 건물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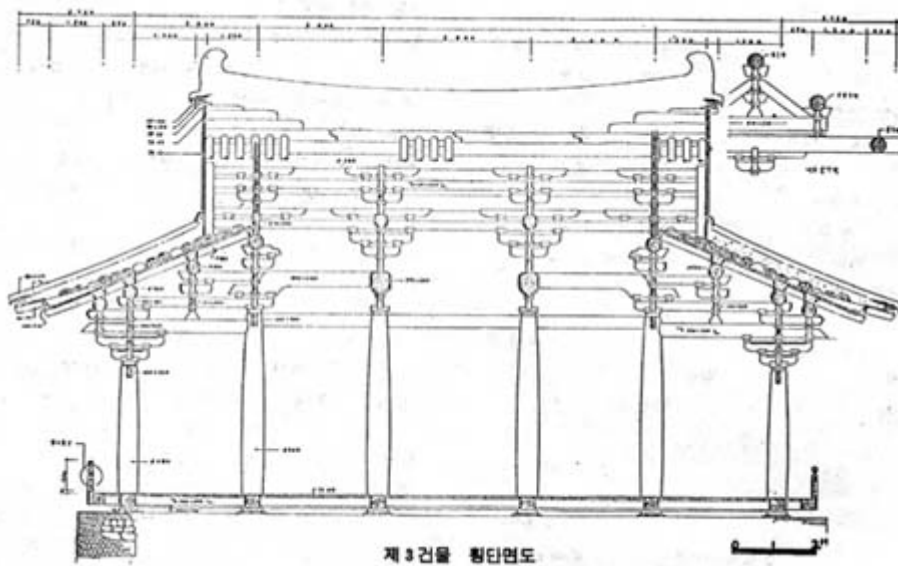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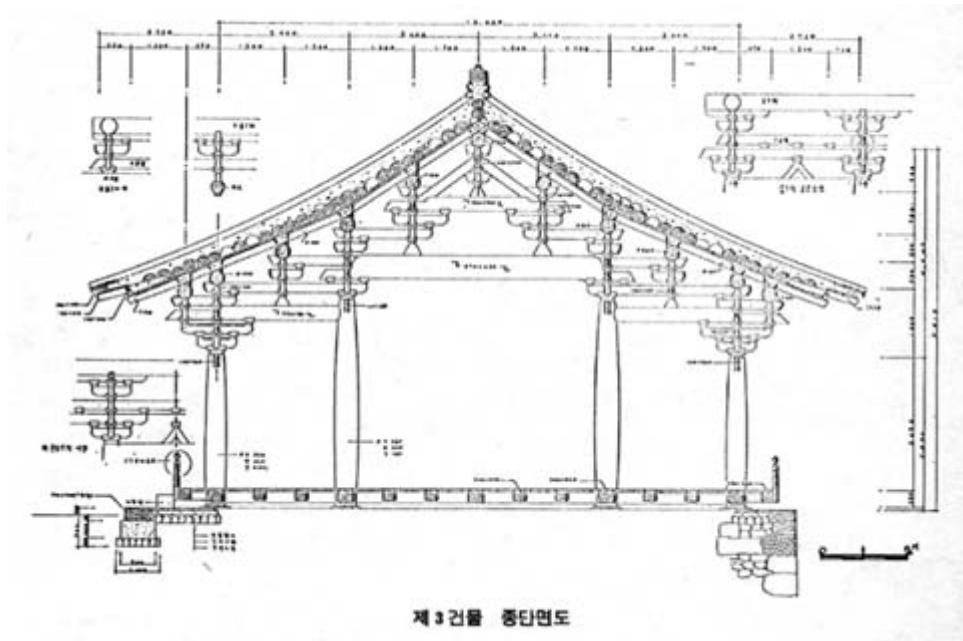
제 1 건물 공포단면 상세도

第3 건물(建物)

정면(正面)5간(間), 측면(側面)4간(間)의 56.64평(坪)으로 1출목(出目) 겹처마 2고주(高柱) 9량(梁)으로 하고 팔작지붕으로 저장(底床)의 우물마루를 깔았다.

공포형식(栱包型式)은 第1 건물(建物) 양식(樣式)과는 달리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 無量壽殿)의 형식(形式)을 참고로 하여 퇴량(退梁)머리가 제공이 되게하는 것은 第1 건물(建物)과 같고 이 퇴량(退梁)위에 외목도리(外目道里)받침 벼개목이 주심(柱心)까지 빠져나와 연결되

도록 한 계량(繫樑)을 올려 놓았고 이 계량(繫樑)위에는 주심(柱心)에서 하중도리(下中道里) 포(包) 대공(臺工)을 거쳐 고주(高柱)위에 연결되는 또 다른 계량(繫樑)은 설치(設置)하였다. 대량(大樑)위 어간(御間)을 4등분(等分)하여 중중도리(中宗道里) 대공(臺工)을 놓고 종량(宗樑)을 설치(設置)하였으며 이 종량(宗樑)위에 대공(臺工)이 중도리(宗道里)를 받치게 하였다. 천정(天井)은 연등천정으로 지붕에는 역시 치미(鷓尾)를 올려놓아 장식(裝飾)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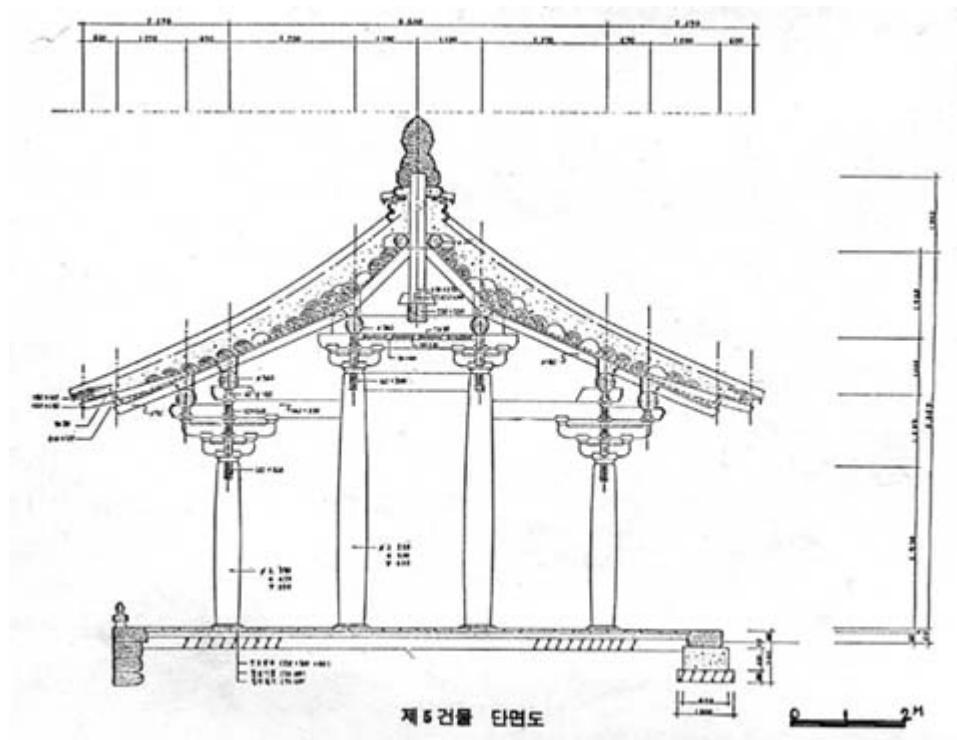


第5건물(建物)

정면(正面) 3간(間), 측면(側面) 3간(間)의 13.18평(坪)으로 1출목(出目) 겹처마에 사모지방으로 하여 화강석(化岡石) 절병통(節瓶樋)을 얹었다.

공포형식(栱包型式)은 第1건물(建物)과 같고 주위(周圍) 발굴(發掘)에서 수습(收拾)된 고층자료(考證資料)에 따라 바닥은 방전(方塼)을 깔아 화강석 기단(基壇) 잣돌을 두르고 3면(面)의 석축변(石築邊)에는 돌난간을 돌렸다.

복원(復元)된 3동(棟)의 건물(建物) 단청은(丹青) 고대(古代)의 문양(紋樣)인 봉정사 극락전(鳳停寺 極樂殿), 수덕사 대웅전(修德寺 大雄殿),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 無量壽殿)의 단청문양(丹青紋樣)과 고구려(高句麗) 고분(古墳) 벽화등(壁畫等)을 참고하여 화려(華麗)하지 않고 장중(莊重)하게 출초(出草)하여 시채(施彩)하였다.



다. 원지 조경 정비(苑池 造景 整備)

안압지(雁鴨池)는 신선정원(神仙庭園) 수법(手法)을 기본형(基本形)으로 한 궁궐정원(宮闕庭園)으로서 연못 자체가 바다를 상징(象徵)하며 연못가에 놓여진 괴석(怪石)은 바닷가의 경관(景觀)을 그려내기 위한 수법(手法)으로 판단(判斷)되고 호안석축(護岸石築)위의 건물(建物) 또한 바다와 연관성(聯關性)이 있는 임해전(臨海殿)이란 명칭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경배치(造景配置)에도 바다의 느낌을 조성(造成)하는데 주안점(主眼點)을 두는 한편 지역(地域)에 따라 그 지형(地形)의 특색(特色)을 살려 배치(配置)하였다.

조경(造景) 수종(樹種)은 해송(海松)을 주경관(主景觀) 구성수종(構成樹種)으로 하였고 석가산(石假山)(무산십이봉(巫山十二峰))에는 해송(海松) 기타의 수종(樹種)으로 대부분 가리워지

도록 하여 바닷가의 경관(景觀)을 구성(構成)하는 매우 자연스런 수법(手法)으로 조경(造景)하였다. 해송(海松)만으로 군락(群落)을 이룰때의 단조(單調)로움을 피하기 위해 해송 사이 사이에 산벗나무를 배식(配植)하고 해송(海松)의 하목(下木)으로는 가을에 아름답게 단풍(丹楓)드는 화살나무를 군식(群植)하는 수법(手法)으로 배경(背景)을 구성(構成)하였다.

차폐요소(遮蔽要素)로서는 느티나무와 참느릅나무, 복자기등의 교목수종(喬木樹種)을 혼식(混植)하는 방법(方法)으로 경관구성(景觀構成)에 배려(配慮)하였다.

경관석(景觀石)의 배석(配石)은 돌의 절리(節理)와 기세(氣勢)를 완전히 살리도록하여 자연스런 관상가치(觀賞價值)를 얻도록 유의(留意)하였다.

경관석(景觀石)의 총수량(總數量)은 대소(大小) 1,286개(個)로서 이를 조사한 바 두 종류로 분류되며 청석(靑石)은 입석(立石)으로 쓰여야 할 생김새와 기세(氣勢)이고, 붉은색의 변질(變質) 화강석(化岡石)은 화성암(火成巖)으로 절리(節理)가 없고 대체로 평석(平石)의 생김새를 가져 넓혀 배석(配石)하였다.

석근(石根)은 최대한(最大限) 묻어 안정감(安定感)과 개성(個性)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지역별 배식(地域別 配植)

(1) 남안지역(南岸地域)

열식(列植)되어 있던 기존(既存)의 수양버들 일부(一部)를 제거(除去)하여 정문(正門)으로부터의 시선(視線)을 연못 수면(水面)과 섬을 향(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양버들 사이의 허전한 공간(空間)을 메우기 위하여 키 작은 꽃나무 류인 진달래, 산철쭉, 고광나무, 병꽃나무, 화살나무 등을 군식(群植)하여 연못을 보기에 지장(支障)이 없도록 하였다.

(2) 입수구 지역(入水口 地域)

입수구(入水口)는 연못 동남부(東南部) 구석진 곳에 위치(位置)하고 있으며 폭포(瀑布)와 함께 안압지내(雁鴨池內)의 중요(重要)한 경관(景觀)을 구성(構成)하고 있다.

폭포(瀑布)는 물이 3단(段)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고 1단(段)의 높이는 1.4m, 2단(段)의 높이는 1.0m, 3단(段)의 높이는 1.2m로서 이곳에는 물과 잘 어울리는 청단풍을 2단(段)과 3단(段) 폭포(瀑布) 양안(兩岸)에 높이의 차이를 두고 심어 떨어지는 물의 일부(一部)가 단풍가지에 가리워 지도록 하였다.

수조(水槽) 주변(周邊)과 수로(水路) 양쪽에는 산단풍을 군식(群植)하여 심산계곡(深山溪谷)의 느낌을 주었다. 수로(水路) 바닥은 점토(粘土)와 강회로 다지고 감포 해변의 검은 잔 자갈을 깔아 누수방지(漏水防止)와 바닷가 경관(景觀)을 조성(造成)하였다.

(3) 동안(東岸)과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峰)의 주봉부분(主峰部分)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峰)의 주봉(主峰)밑에 해당되는 동안(東岸)물가는 가파른 경사(傾斜)로서 경관석(景觀石)의 축적(築積)으로 해변(海邊)의 암석(巖石)을 연상(聯想)토록 하였고 해송(海松)을 심어 해변(海邊)의 느낌은 한층 더 강하게 표현(表現)하였다.

경사(傾斜)가 완만(緩慢)한 곳에는 병꽃나무, 화살나무, 싸리나무를 군식(群植)하고 해송(海松)사이에는 산단풍을 심어 입수구(入水口)의 경관(景觀)과 무리없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峰)의 주봉(主峰)에 해당되는 부분(部分)은 기존(既存)의 감나무와 해

송(海松), 벗나무, 대나무등을 살려 기복(起伏)을 주고 해송(海松)사이에는 봄의 경관(景觀)을 위한 산벚나무를, 가을의 멋을 위해 느티나무와 복자기등을 혼식(混植)하였다.

(4) 협곡부(峽谷部)와 반도형(半島形) 돌출부(突出部)

북단(北端) 건물지(建物池)에서 깊숙히 바라보이는 협곡부(峽谷部)는 아늑하고 평화(平和)스런 분위기(霧圍氣)로 조성(造成)하기 위하여 재래종(在來種) 복숭아나무를 자연스럽게 열식(列植)하였으며 낮은 부분의 물가에는 병꽃나무, 고향나무, 진달래를 군식(群植)하고 돌출부(突出部)에는 배롱나무를 심어 봄의 경관(景觀)을 고려(考慮)하였다.

협곡(峽谷)의 뒤흘에는 대나무를 군식(群植)하여 차폐(遮蔽)하고 공간(空間)의 허전함을 메꾸었다.

반도형(半島形) 돌출부(突出部)에는 재래종(在來種) 복숭아나무와 백매화, 산수유를 심어 조화(調和)를 이루고 물가에는 수형(樹形)이 아름다운 배롱나무를 심고 병꽃나무, 싸리나무를 군식(群植)하였다.

중앙 성토부에는 해송(海松)을 배식(配植)하고 시선(視線)이 집중(集中)되는 중앙부(中央部)에는 수형(樹形)이 좋고 키가 작은 적송(赤松)을 심어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峰)의 흐름을 받았다.

(5) 북안지역(北岸地域)

북안(北岸)의 석가산부분(石假山部分)은 무산주봉(巫山主峰)의 경관(景觀)을 받아 해송(海松)과 복자기나무를 배치(配置)하고 구륙(丘陸) 후면에는 느티나무와 참느릅나무를 심고 대나무를 군식(群植)하여 차폐(遮蔽)와 겨울의 쓸쓸함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6) 연못 속의 섬

3개(個)의 섬 중 북쪽과 남쪽의 섬은 약간의 작은 꽃나무를 곁들여 해송(海松)을 심고 가운데 작은 섬은 자연석(自然石)만으로 꾸며 경관구성(景觀構成)하였다.

(7) 서안(西岸) 2단(段) 석축지(石築址)

경관석(景觀石)을 배석(配石)하고 해당화, 좀작살나무, 진달래를 심고 음지(陰地)에서도 잘 자라는 맥문동을 식재(植栽)하였다.

라. 기타 관리시설(其他 管理施設)

복원(復元) 정비(整備)된 안압지(雁鴨池)와 임해전(臨海殿)을 소중(所重)히 관리(管理)하고 보존(保存)하기 위한 관리시설(管理施設)로서 건평(建坪) 48평(坪) 규모(規模)의 관리사무소(管理事務所)를 한식구조미(韓式構造美)를 가미(加味)한 현대식(現代式) 건물(建物)로 신축(新築)하였고 정문(正門)과 후문(後門) 그리고 약 21,000평(坪)의 현(現) 경역(境域)주위의 철책(鐵柵) 1,008m가 설치(設置)되었으며 급수(給水) 및 조명시설(照明施設)과 대형(大型) 안내판(案内板)이 정비(整備)되었다.

임해전(臨海殿)과 안압지(雁鴨池) 정비공사(整備工事)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시행(施行)에 따라 설계(設計)는 삼성건축설계사무소(三成建築設計事務所)에서 담당하였으며 1979年 10月 6日 신풍건설주식회사(新豐建設株式會社)와 주식회사 한국종합조경(株式會社 韓國綜合造景)에 의해 착공(着工)되어 1980年 9月 30日 완공되었다.

이 공사(工事)에 소요(所要)된 주요자재(主要資材)는 석재(石材) 289m³, 목재(木材) 254,000재(才), 기와 42,500매, 수목(樹木) 33종(種) 17,600주(柱)가 소요(所要)되었고, 목공(木工) 4,050명, 와공(瓦工) 120명, 석공(石工) 10,300명, 단청공(丹青工) 1,300명, 조원공(造園工) 2,710명을 포함하여 연인원(延人員) 29,400명이 취역(就役)되었으며 공사비(工事費)는 612,200,000원이 소요(所要)되었다.

4. 모형(模型) 복원(復元)

전술(前述)한바와 같이 학술발굴조사(學術發掘調査)와 가능(可能)한 고증(考證) 자료(資料)를 근거(根據)로 하여 안압지(雁鴨池)를 정비(整備)하고 호안석축(護岸石築)을 재축(再築)하여 돌과 나무를 심고 남은 유구(遺構)를 정리(整理)하여 연못가의 건물(建物) 3동(棟)을 추정(推定) 복원(復元)하였으나 찬란(燦爛)했던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유적(遺蹟)의 원상(原狀)을 파악(把握)하고 이해(理解)하기에는 미흡(未洽)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밝혀져야 할 역사적(歷史的) 연구자료(研究資料)와 건축구조(建築構造) 그리고 조원사적(造園史的)인 연구자료(研究資料)로 제공(提供)하는 동시(同時)에 우리 문화(文化)의 우수성(優秀性)에 대한 자존(自尊)과 이해(理解)를 높이고자 당시(當時)의 동궁(東宮) 모습을 모형(模型)으로 추정(推定) 재현(再現)하게 되었다.

모형(模型) 제작(製作) 설계(設計)를 위하여 발굴(發掘)확인(確認)된 건물(建物)의 평면(平面) 규모(規模)와 출토(出土)된 건축부재(建築部材) 일부(一部)를 근거(根據)로 삼아 신라(新羅) 동궁(東宮)의 모습을 복원(復元)설계(設計) 하기에는 너무도 자료(資料)가 부족(不足)하였다.

설계(設計)를 담당한 장기인선생(張起仁先生)과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의 전문가(專門家) 그리고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의 전문가(專門家) 등이 모여 안압지(雁鴨池)와 임해전(臨海殿)에 관(關)한 기록(記錄)이 보이는 많은 고서(古書)들을 찾아 내용(內容)을 발췌(拔萃)하고 조사분석(調査分析)하였으나 복원(復元)설계(設計)에 필요한 구조양식(構造樣式)이 설명(說明)된 기록(記錄)은 찾을 수가 없었다. 동경잡지(東京雜誌)등에 보이는 기록(記錄)에 따라 이를 추적(追跡) 현존(現存)하는 유구(遺構)들을 실측(實測) 분석(分析)하고 설계에 적용(適用)도 하였다.

안압지(雁鴨池) 발굴(發掘)조사(調査) 결과(結果) 확인(確認)된 모든 자료(資料)를 위주(爲主)로 하고 한국(韓國)에 현존(現存)하는 고대(古代) 건물(建物)의 구조양식(構造樣式), 기(既) 복원(復元)된 1,3,5건물(建物), 그리고 일본(日本), 중국(中國)등 당대(當代)의 건축양식(建築樣式)에 관한 자료(資料)와 면밀(綿密)한 현장(現場) 실측자료(實測資料)를 토대(土臺)로 하고 사계(斯界) 전문가(專門家)의 의견(意見)과 자문(諮問)을 참고(參考)로 하여 안(案)을 추정(推定) 설계(設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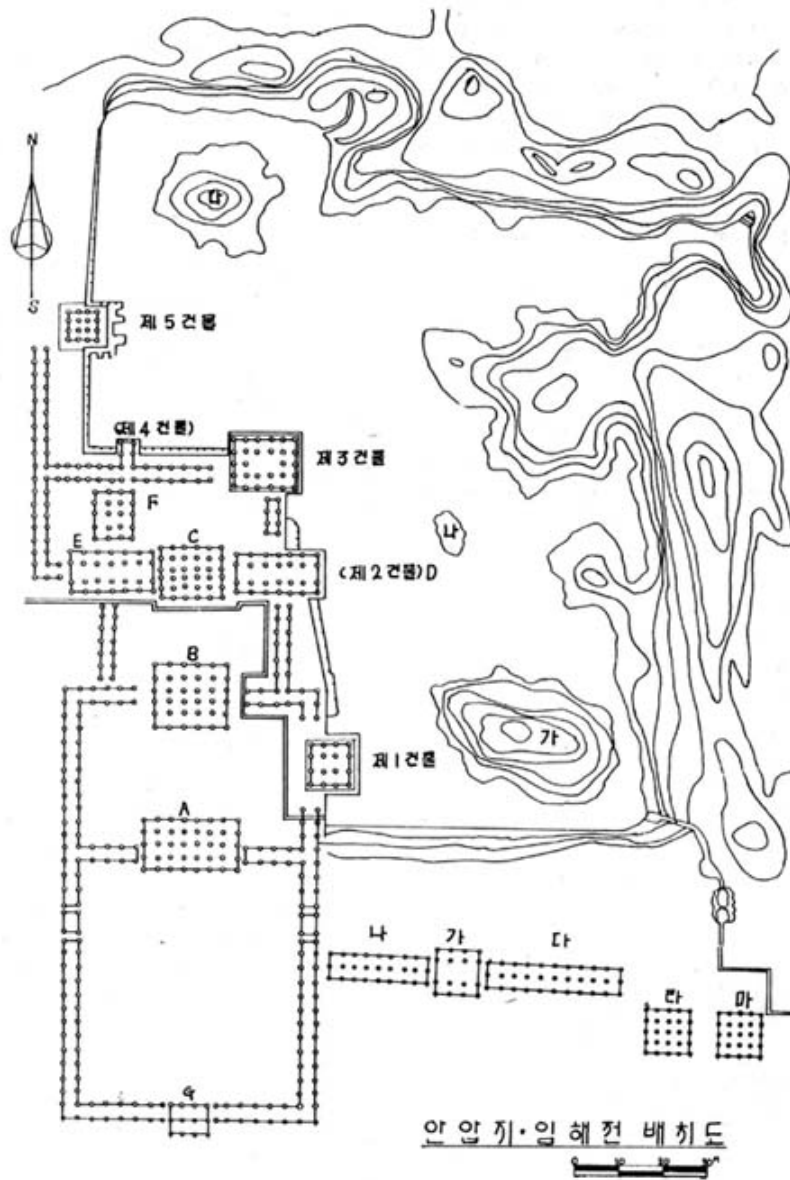
1981年 10月 착수(着手)된 설계(設計)는 동년(同年) 12월말(月末)에 완료(完了)하였으며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설계심사위원회(設計審査委員會)에서는 수차(數次)에 걸친 연구토의(研究討議)와 심의(審議) 끝에 의견(意見)을 모아 설계일부(設計一部)를 수정(修正)하여 확정(確定)하고 1982年 3月 24日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심의의결(審議議決)을 거쳐 승인(承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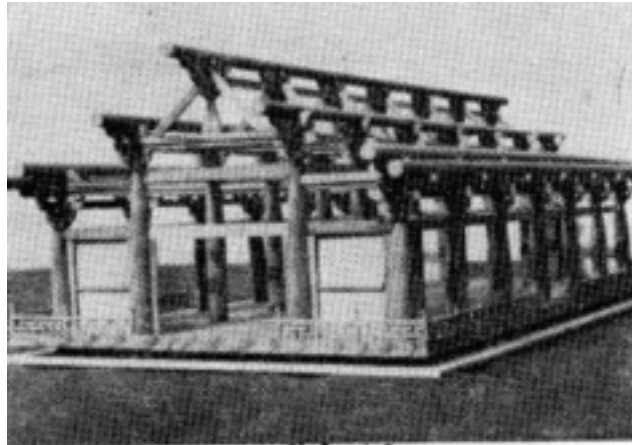
1982年 6月 30日 경주시(慶州市)에서 발주(發注)되어 기흥성 모형제작공사에서 제작(製作)을 담당하였으며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지도위원(指導委員)의 지도와 자문(諮問)을 받

았다.

약(約) 13개월(個月)의 제작기간(製作期間)이 소요(所要)되어 1983年 8月 8日 완료(完了)되었 으며 38,400,000원의 제작비(製作費)가 소요되었다.

50분(分)의 1로 축소(縮小)하여 추정제작(推定製作)된 이 모형(模型)의 규모(規模)는 남북측(南北側)이 5.6m, 동서측(東西側)이 4m로서 발굴확인(發掘確認)된 바에 따라 독립(獨立) 건물(建物) 13동(棟)과 회랑(回廊) 156간(間), 원지(苑池)와 수구(水溝)등으로 구성(構成)되었다.





경주시 이남동 E建物 架構 模型 259 259

E건물 가구(建物 架構)



模型 全景 259 259

모형전경(模型全景)



A建物 模型 259 259

A건물 모형(建物 模型)

경주시(慶州市) 인왕동(仁旺洞)의 사적(史蹟) 第 18號인 임해전지(臨海殿池)에 1980年 복원(復元)된 第3건물내(建物內)에 전시(展示)된 이 모형(模型)을 통하여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건축양식(建築樣式)과 우리 조원(造苑)의 특성(特性)을 파악(把握)할 수 있는 계기(契機)가 되어 보다 깊은 연구(研究)가 진행(進行)될 것을 기대하며 모형(模型)으로 추정(推定) 복원(復元)된 임해전(臨海殿)의 건물(建物) 배치(配置)와 주요건물(主要建物)의 구조양식(構造樣式)을 소개(紹介)해 두고자 한다.

가. 임해전(臨海殿)의 건물배치(建物配置)

안암지(雁鴨池)의 서쪽(西)에 정남북(正南北)으로 축(軸)을 이루어 중심(中心) 건물(建物)이 배치(配置)되어 있다.

남(南)으로부터 중문(中門)(G건물(建物))을 들어서면 넓은 전정(殿庭)이 있고 정전(正殿)이 있을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정면(正面) 7간(間), 측면(側面) 4간(間)의 A건물(建物)이 위엄(威嚴)있게 자리하고 있으며 그 뒤에 중전(中殿)인 정(正)·측면(側面) 각(各) 5간(間)의 방형(方形) B건물(建物)과 내전(內殿)인 듯한 역시 정(正)·측면(側面) 각(各) 5간(間)의 C건물(建物)이 있고 그 좌우(左右)에 익체건물(翼體建物) E와D(第2건물(建物))가 위치(位置)하여 이 중심건물(建物) 모두가 중문(中門) 좌우(左右)의 익랑(翼廊)에 남북(南北)으로 연결된 동(東)·서(西) 행랑(行廊)과 접속(接續)되어 있다.

E건물(建物) 북(北)쪽에 F건물(建物)을 두고 연못 호안석축면(護岸石築邊)으로는 第1건물(建物)(복원(復元)), 第2건물(建物)(D건물(建物)), 第3건물(建物)(복원(復元)), 第4건물(建物) 그리고 북측단(北側端)에 第5건물(建物)(복원(復元)), 第5건물(建物)을 정각형식(亭閣形式)으로 배치(配置)하여 역시 연결하였다.

중문(中門)과 정전(正殿)사이의 동(東)·서(西)행랑(行廊)에는 각각(各各) 1개소(個所)의 협문(夾門)을 두고 동행랑(東行廊)의 동(東)쪽에는 남향(南向)한 건물(建物) “가”, “나”, “다” 를 동서(東西)로, 역시 동(東)쪽으로 조금 떨어진 위치(位置)에 “라” “마” 건물(建物)을 남향(南向)으로 배치(配置)하였다.

나. 各 建物의 規模와 構造

建物別	間數		바닥面積 (坪)	架構形式	지붕구조	바닥마감	비고
	前面	側面					
A	7	4	91.88	7 樑	팔작·겹처마	전돌깔기	中層
B	5	5	85.6	9 "	"	"	"
C	5	5	70.6	11 "	맞배·겹처마	우물마루	單層
D	6	3	59.34	5 "	맞배·훑처마	"	"
E	6	3	59.34	5 "	"	"	"
F	4	3	30.45	5 "	팔작·훑처마	전돌깔기	中層
G	3	2	20.42	5 "	팔작·훑처마	"	單層
가	3	3	39.83	7 "	맞배·훑처마	"	"
나	8	2	45.5	5 "	"	"	"
다	10	2	62.88	5 "	"	"	"
라	4	4	32.2	平 6 "	사모·겹처마	"	"
마	4	4	32.2	平 6 "	"	"	"

다. 주요건물 구조양식(主要建物 構造樣式)

A 건물(建物)

전면(前面) 7간(間) 측면(側面) 4간(間)에 건평(建坪)은 91.88평(坪)으로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하고 1출목주심포(出目柱心包)로서 상(上)·하층(下層)이 구분(區分)되지 않는 통층의 중층건물(中層建物)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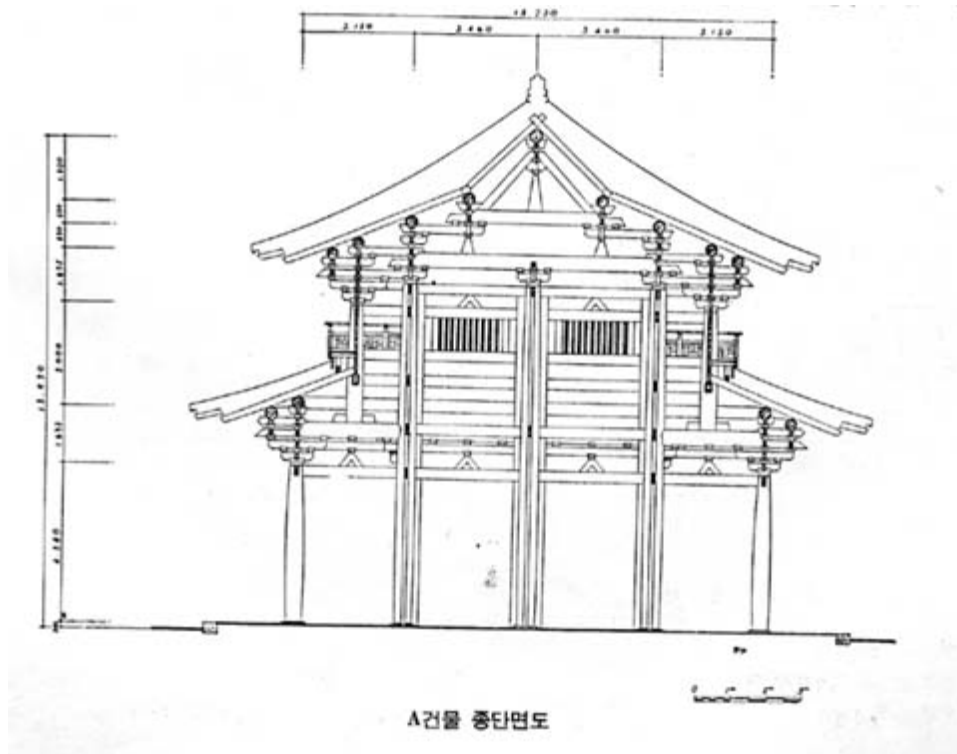
하층(下層)의 외진주(外陣柱)는 평주(平柱)가 되고 내진(內陣) 고주(高柱)는 상층(上層)에서도 내진(內陣)이 되며 상층(上層)의 평주(平柱)는 하층(下層) 퇴량(退樑) 위에 앉은 층단주(層斷柱)로 하였다. 중앙렬(中央列)의 중고주(中高柱)가 대량(大樑)밑을 받치는 7량(樑) 가구에 공포(栱包)의 양식(樣式)은 第3건물(建物)과 유사(類似)하다. 공포(栱包)는 굽받침이 없는 주두(柱頭) 위에 1,2계공(齊栱)과 첨차(檐遮)를 짜고 포중방(包中枋)을 건너 질렀다. 이 포중방(包中枋)과 창방(唱枋)사이에는 八字(字) 대공(臺工)이 받치며 3계공(齊栱)은 퇴량(退樑)머리가 나오게 하여 그 위에 벼개목을 놓아 도리(道里)를 올려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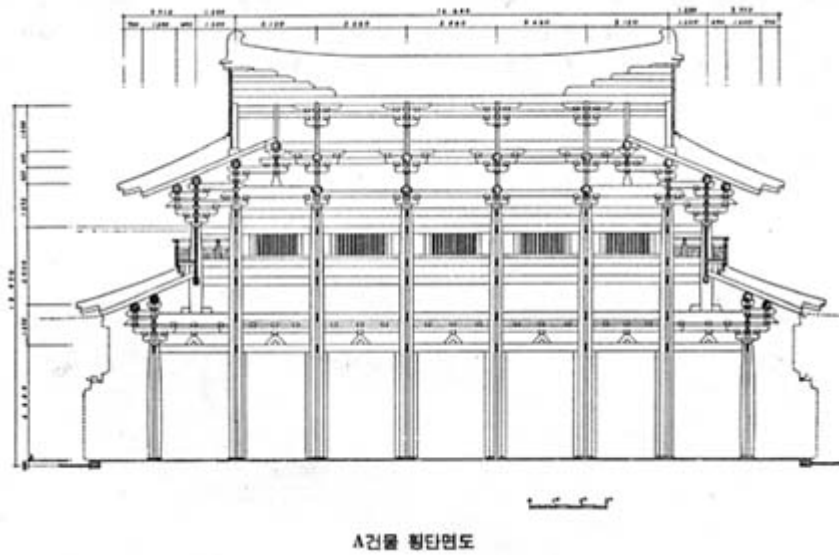
상층(上層)의 공포(栱包)는 하층(下層) 공포(栱包)와 같은 형태(形態)로 고주(高柱) 위 포대공(包臺工)과 공포(栱包)사이에는 계량(繫樑)으로 연결토록 하였으며 고주(高柱) 포대공(包臺工) 2번째에는 향아리형(形)의 대들보를 올려 그 위 포대공(包臺工)이 중도리(中道里)와 중량(宗樑)을 받게 하였다.

중량(宗樑) 위에 포대공(包臺工)을 놓아 중도리(宗道里)를 받치고 뜬 창방(唱枋)과 중량(宗樑)사이에는 곡(曲)이 약한 八字(字) 대공(臺工)이 뜬 창방(唱枋)을 잡아 주도록 하였다.

상층(上層)의 명에 창방(唱枋)위에 인방(引枋)을 건너질러 창(窓)을 내었고 창(窓) 외부(外部)로는 발굴시(發掘時) 출토(出土)된 형태(形態)의 난간(欄干)을 설치(設置)하였다.

건물(建物) 바닥은 외벌기단에 전들을 깔고 천정(天井)은 연등천정으로 하였으며 용마루와 합각에는 치미(鷓尾)와 지네철로 장식(裝飾)하였다.





B 건물(建物)

전면(前面) 5간(間) 측면(側面) 5간(間)에 건평(建坪) 85.6평(坪)으로 거의 정방형(正方形)의 평면(平面)을 가진 통층의 중층건물(中層建物)로 1출목주심포(出目柱心包) 겹처마팔작집이다.

가구형태(架構形態)는 A 건물(建物)과 유사(類似)하나 측면(側面) 간수(間數)가 1간(間) 더 많아 가운데 쌍고주를 세워 이 고주(高柱) 사이에 대량(大樑)을 걸치고 대량(大樑)위에 대공(臺工)을 짜아 종도리(宗道里)를 받치게 하였다.

고주(高柱)와 중고주(中高柱) 사이에 퇴량(退樑)이 건너가 평주(平柱)위에서 외목도리(外目道里)를 받치고 또 고주(高柱)와 중고주(高柱) 사이를 이등분(二等分)하여 또 한 개의 도리(道里)를 첨가시킨 9량(樑) 가구이다.

상(上)·하층(下層)의 공포(栱包)양식(樣式)은 第1 건물(建物)과 같고 상층(上層)의 난간(欄干), 지붕, 합각(合角)과 건물(建物)과 같고 A 건물(建物)과 같다.

參 考 文 獻

三國史記
東國輿地勝覽
東京雜記

東史綱目
慶州邑誌
雁鴨池發掘報告書